



# 돼지질병 근절에 단합된 힘 보여주는

## 양평지부

3월

8일, 양평지부를 찾아가는 날은 양평지부의 월례회 날이었다. 사무실 문을 열기 전에 들리는 소리는 조용한 가운데 한 발표자가 의견을 말하는 낭랑한 목소리였고, 그와 함께 조용히 이를 경청하는 회원들의 진지한 분위기에 사무업속함을 느끼기 까지 하였다. 이날 월례회의의 주된 내용은 돼지콜레라 백신접종이었으며, 돼지콜레라 박멸을 위한 구체적인 시안들이 논의 되었다.

군청 축산계장과 담당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콜레라 백신에 대한 유인물과 토의, 백신의 공급절차 및 새로운 농림부의 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실제 상황에서의 어려운 점 등이 심도있게 이야기 되었다. 회의에는 젊은 회원들을 비롯하여 선배 양돈인이라 칭할 수 있는 나이 많은 회원들이 다수 보였고, 시끌벅적한 좌담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 발표자의 말에 경청하는 회의다운 회의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양평지부의 월례회의의 모습에서 양평지부의 밝은 미래를 가늠할 수 있었다.

### 직판장 운영 등으로 튼튼한 기반을 가진 지부

1979년 회원 12명으로 설립된 양평지부는 현재 29명의 회원을 두고 있으며, 현 남길우 지부장을 비롯 부지부장 1명, 총무 1명, 감사 2명과 지역별



▲양평지부 월례회의 모습

로 분산된 이사 3명으로 임원이 구성되어 있다.

양평지역은 현재 68가구 양돈농가가 있으며, 돼지 3만두 가량을 키우고 있는 양돈산업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는 지역이다. 이는 양평지역이 상수원 특별 보호지역으로서 분뇨문제 등 규제가 엄격하고, 90년대에 접어 들면서 신규 농장설립은 물론, 기존 농가가 규모를 늘리는 것조차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길우 양평지부장은 기존의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분뇨처리 해소 등에 상당한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한다.

지부는 회원도 많지 않고, 자금도 적은 상황에서, '92년 회원들의 출자로 돼지고기 직판장을 설립·운영하면서, 지부의 활성화를 꾀해 이제는 어느정도 기반이 잡힌 상태라고 한다. 지부는 그 이외에도 기자재 공동구매와, 차량운영을 통한 계통출하 사업을 해 왔으며, 기자재 공동구매 사업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회원들과 함께 많은 고생이 있었다고 지부장은 이야기 한다. 올해는 회원들의 회비를 2만원에서 1만원으로 낮추었으며, 회비로 인한 부담보다는 협회

**“협회를 중심으로 모든 회원 농가들은 100% 돼지콜레라 백신접종을 결의하였고, 그 결의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100% 백신접종을 확신합니다”**



있다. 분처리는 축협사료를 쓰는 조건으로 해서 무료로 처리되고 있으며(운송비의 일부를 소액 부담하기는 한다), 뇨처리는 처리 비용이 적지 않게 들기는 하지만 깔끔한 방향으로 전량 처리하고 있다.

지부의 회원들은 돼지를 수출규격돈으로 출하하는 농가가 많지 않은 편이며, 서울과 불과 몇분 걸리지 않은 잇점을 살려 직접 상인들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더 경제성이 맞아 거의 도매시장에 출하하고 있다고 한다. 등급만 잘 받으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에 회원으로써의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돼지의 분은 축협 유기질 비료공장으로, 뇨는 환경사업소로 완벽한 처리**

지부는 매월 둘째주 화요일 월례회의를 가지고 있으며, 1년에 한 번 여름에 야유회를 가지고 시식회 등 행사를 겸하고 있다.

월례회를 통해 각종 세미나나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회원들의 요구에 의해 강사를 초빙해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한다.

회원들은 오가는 길에 자주 협회 사무실에 들러고 있으며, 친목도모와 정보교환의 장소로써 협회 사무실은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양평지부는 분노처리의 경우 상수원특별보호구역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의해 완벽하게 처리되고 있는데, 분노를 나누어 양돈장에서 나오는 분은 양평축협 유기질 비료공장에서 전량 처리하며, 뇨는 정부의 용역을 얻은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 환경사업소에서 전량 수거해 가 처리되고

### **돼지 질병근절, 기자재 공동구매, 일괄 계약에 노력할 터**

남길우 양평지부장은 앞으로의 지부 운영에 대해 다음의 3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라 이야기한다.

첫째로 가장 먼저 질병근절 사업을 협회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지금은 질병방역을 군에서 맡아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협회가 그 주도권을 받아 절대 정청지역으로 양평을 다듬어 나갈 계획이다. 질병없는 깨끗한 지역에서 생산하는 품질좋은 돼지고기 생산이 남길우 지부장의 사명이라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다.

두번째, 현재 하고있는 기자재 공동구매 사업을 농가의 생산원가 절감 측면에서 계속해 나갈 것이다.

세번째, 사료 공동구매(일괄계약)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분노처리와 관련해 축협사료를 대개 사용하고 있으나, 사료·약품 등의 일괄계약 협의도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고려해 본다는 것이 남길우 지부장의 생각이다.

지부장은 위의 3가지 사항을 이후 지부 사업의 중심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와 함께 인원이 많지 않아 서로 가족같은 회원들의 단합과 친목을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 남길우 지부장은 “혼자서만 잘 해서 잘되는 건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존하는 사회니까요. 양돈인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모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부도 잘 해나가는 회원보다는 미흡한 회원들의 선도와 유도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라고 덧붙였다.



### 돼지콜레라 근절 결의를 통해 100% 백신접종 확산

양평지부는 돼지콜레라 근절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협회를 중심으로 모든 회원농가들은 100% 콜레라 백신접종을 결의하였고, 그 결의를 지켜나가고 있다. 지부장은 100% 백신접종을 확산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2001년 돼지콜레라 청정국가 선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부장은 이야기한다. “이제는 양축가들의 의식이 높아졌습니다. 여지껏 내 농장만 질병에 안 맞으면 되고, 맞아도 나만 손해보면 된다는 생각을 가졌으나, 지금처럼 제도적으로 꾸준히 추진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와 계도가 필요하며, 도축장 제어 등의 제도적인 장치가 뒤따르는 것도 바람직한 일입니다”라고 말하며, 양돈산업을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다른 여러 부문에 대해서도 콜레라 박멸에서 볼 수 있는 힘을 합한 추진력을 정부나 협회에서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남길우 지부장은 현재에는 양돈장 분뇨처리의 획기적인 방안이 없음을 이야기한다.

지금으로써는 시설개선에 의해 각 농가에서



▲군 담당직원이 돼지콜레라 백신을 회원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남길우 지부장은 지부장 연임을 기념하고,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뜻에서 회원들을 위해 자택에서 점심을 준비하였다.

축분처리시설이 완벽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한다. 하지만 축분처리 시설을 개개인의 비용으로 설치하다 보면 농장운영의 경제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축분공동처리장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을 이야기 한다. 그런 면에서 지금의 양평은 꽤 다행이라고 이석규 총무는 말하며, 앞서 말했듯이 기존의 양돈농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상당한 편이라고 한다. 다른 지역도 정부의 보조가 따라 주어야 할 것이며, 양평 또한 축분을 처리해 주는 축협외의 비료공장이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 자조금이 필요함을 강조

남길우 지부장은 최근 농·축협의 통합되는 것에 관하여 부정적인 뜻을 나타내며, 농업과 축



▲남길우 양평지부장

산업은 엄연히 나뉠대로 다른 전문분야임을 이야기 하였다. 축종에 따라 협회가 필요하듯 전문적인 관리나 홍보, 경영이 필요하며, 경쟁력 차원에서 경제원리로만 따져서 통합시키는 것은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의 산업은 조직적으로 계획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정부의 축산정책방향이 시시각각 바뀌고 있어, 많은 노력과 재정이 낭비되고 있으므로 변화없는 정책이 필요함을 이야기 하였다.

그는 또한 양돈인들의 자조금 제도는 꼭 필요한 것이라 말하며, “내 사업은 나 자신 스스로 지키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조금입니다. 가장 힘들 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마련하는 것이지요. 자조금은 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같습니다”라며 한시바빠 이루어지길 바랐다. 결국 우리의 양돈산업은 육질 좋은 고급육을 생산하는 등급제로 가야 할 것이며, 자조금이 이를 앞당겨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 화재농가 복구작업에 보여준 회원들의 아낌없는 지원이 가장 기억에 남아

양평지부는 타 지부와 다르게 원로 회원들이 유난히 많다. 남 지부장은 원로 회원들이 항상 협회를 지켜주면서 후배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참여도가 커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한다. 이는



▲이석규 총무. 지부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가슴에 단 돼지콜레라 근절 표어가 시선을 끈다.

쉽게 지부장을 비롯 젊은 양돈인들 또한 원로 회원들을 진정으로 섬기고 존경하고 있음을 짐작케 해 준다.

남 지부장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로 95년 겨울에 발생한 한 회원농가의 화재를 이야기 한다.

언제나 그렇듯이 모든 것을 깡그리 잃어버리게 하는 화재 발생이후, 그 누구보다도 회원들이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장비, 인력 등을 아낌없이 지원해 복구작업에 도움을 주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우리(협회)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고 지부장은 강조하며, 임기동안 가장 보람있었던 일이었다고 한다.

월례회를 끝내고 지부장은 회원들에게 이야기 한다. “그래도 양돈만큼 할 만한 사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다른 사람들을 둘러보아도 다들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도 더욱 힘을 내어 문제점의 처리방안과 대처방안을 마련해 보고, 모두 견디어 내어야 합니다. 서로 서로 힘을 합쳐서 꼭 꾀히 지켜나갑시다”

한편, 남길우 지부장은 양평지부의 이석규 총무가 놓여민 후계자 회장으로, 축협 임원으로, 마을 이장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부의 여러 가지 사업에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어 항상 고맙게 느낀다고 덧붙인다. <취재 : 조진현> **양돈**